

혼돈의 호남정치

민주당 공천전략 변화·선거법 개정·정계개편 ... 내년 총선 구도 불확실성 커져

내년 광주·전남지역 총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전략 변화와 선거법 개정, 정계개편 등 각종 변수들이 부상하고 얽히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를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선거제도 개정 및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막판까지 혼란이 거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복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서울 서부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5~6개 지역구에서 밀리고 있어 외부인사 영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의 '경선 원칙' 구도에서 벗어나 외부인사 투입 등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전격적인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달 광주·전남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이광범 변호사, 이정희 한국전력 감사, 김홍길 민화협 대표, 김병원 농협 중앙회장 등 신진·외부인사들을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시켜 주목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정희의 한전 감사는 광주 동남 을 출마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길 민화협 대표는 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밖에도 전남 일부 지역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군이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판단 아래, 외부인사 영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광주·전남 5~6곳
외부인사 영입·전략공천 거론
광주 광산갑 권리당원 조사
경선구도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선거제 개편·선거구 획정
내년 2월까지 미뤄져
막판까지 혼란 거듭 전망

알려졌다.

또 광주 광산갑 등에서 진행되는 권리당원 전수조사도 민주당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탈법적으로 모집된 권리당원들은 선거과정에서 배제되고, 연관성이 밝혀진 입지자는 경선 참여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입지자들에게 대한 사법당국의 내사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도 내년 총선 구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광주 서구 갑·을과 전남 여수 갑·을이 통합되면서 경선은 물론 총선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전남은 여수에 이어 1개의 선거구가 더 줄

어지면서 연쇄적인 지역구 통폐합 쓰나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축소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은 내년 총선 막판까지 밀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계개편의 흐름도 주목된다. 이해찬 대표의 '외부인사 영입' 발언 이면에는 무소속이나 타당 의원들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 국회의원들을 과감하게 영입, 호남을 석권한다는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에 대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을 무력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당원 전수조사도 민주당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탈법적으로 모집된 권리당원들은 선거과정에서 배제되고, 연관성이 밝혀진 입지자는 경선 참여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입지자들에게 대한 사법당국의 내사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이 문재인 정부의 배심부라는 점에서 당에서 민심의 동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드를 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계개편과 선거법 개정 등에 따라 전반적인 총선 구도는 막판까지 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서 펼쳐진 세계 최고의 거리극 '인간모빌' 1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ACC광주프린지인테네셔널 '세계 최고의 거리극'에서 프랑스 극단 트랑스엑스프레스가 '인간모빌'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FC K리그1 무대 복귀

K리그2 1위 확정

내년 시즌 새 전용구장 사용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1 무대로 복귀한다.

'괴돌이' 박진섭 감독이 이끄는 광주가 20일 하나원큐 K리그2 2019의 우승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0면>

전날 안양과 33라운드 홈경기에서 펠리페와 김주공의 멀티골로 4-0 대승을 거둔 광주는 이날 2위 부산이 안산에 0-2로 지면서, 남은 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위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11년 K리그에 참가한 광주는 창단 첫 우승과 함께 두 번째 승격에 성공했다.

2012시즌 15위로 강등을 경험한 광주는 2014시즌 '기적의 가을'을 보내며 승격을 이뤘다. 같은해 K리그2 4강 막차를 탄 광주는 준플레이오프(강원), 플레이오프(안산)에 이어 승강플레이오프(경

남)에서도 승자가 되며 승격의 감격을 누렸다.

하지만 광주는 열악한 시민구단의 한계를 노출하며 2017시즌 K리그1 최하위를 기록, 다시 K리그2로 강등됐다.

광주는 올 시즌 탄탄한 팀워크 속에 박진섭 감독이 주문한 '생각하는 축구'가 자리잡으면서 2년 만에 큰 무대로 돌아가게 됐다.

광주는 36라운드 중 33라운드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지난 2013년 상주가 35라운드 중 32라운드 만에 우승을 확정 이후 가장 일찍 우승을 확정된 팀이 됐다.

앞서 광주는 '득점 1위' 펠리페(19득점

3도움)를 앞세워 K리그 최다무패기록(19경기)을 갈아치우는 등 올 시즌 '불꽃질주'를 했다. 팀 최초 6연승, 팀 통산 100승, 팀 통산 400호골, 팀 단일시즌 최다승(20승) 기록도 새로 썼다.

광주의 선두 질주에 관중석도 뜨거웠다. 시즌 초반 낮은 날씨가 이어지는 등 악재가 있었지만 올 시즌 홈 17경기에 5만 1261명이 찾아 3015명의 평균관중을 기록했다.

1부리그 승격에 성공한 광주는 2020시즌 새 전용구장에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순 10·19사건 71년 만에 첫 합동추념식

19일 순천 장대공원서 ... 동부권 6개 시·군 유족 참여

여수·순천 10·19사건 71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이 열렸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순천 장대공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유족,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1주년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합동추념식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2부로 나눠 열렸다. 1부는 희생자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위령제에 4대종단 종교제례, 헌향과 헌화, 진혼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

서는 추모식으로 여순항쟁 실태보고, 추모연대사, 추모합창 등이 실시됐다.

이번 추념식은 사건 발생 71년만에 처음으로 동부권 6개 시·군 유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추념식으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추념식은 사건이 발생했던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등 6개 시·군에서 각각 열렸다. 그러나 지난 7월 71주년 기념사업 추진회의에서 올해부터 합동추념식을 개최하기로 유족들이 전격 합의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추념식을 직접 주관해 유족의 참여 및 화합에 힘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고, 그 시적이 특별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71주년 합동추모식을, 11월 14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건의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르포-태풍 피해 시름 해남 배추밭 ▶6면

위라벨 시대-문화관광을 키우자 ▶18면

무등기 결승 진출 팀 가려졌다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니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니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